

乙巳年

을사년

2025

Happy New Year

존경하는 경주지부 조합원 동지여러분!!

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마무리가 되고 2025년 을사년 푸른봄의 해가 밝아왔습니다.
2024년 쉽 없이 달려온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금속노조 경주지부 13기 집행부 시작 이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.
집행부는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동조합 구축을 위해 달려왔습니다. 조합원 동지들의 지지와 참여덕분에
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동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,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더 큰 성과
를 만들어가겠습니다.

윤석열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.
수많은 민주열사의 피로 쌓아온 민주주의가 미치광이의 불법 계엄 폭력으로 또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.
이에 우리는 무너진 노동 권리, 노동자 인권의 회복을 위해 투쟁의 앞에 설 것입니다.

조합원 동지 여러분!

동지들! 희망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.
사리사욕이 아닌 노동계급을 위해 투쟁하는
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들이야말로 역사의 희망입니다.
자부심을 가지고 을사년 새해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자는 각오를 다집시다.
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해낼 수 있습니다.

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.

2024. 12.30

금속노조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

